

35억 쓴 새 국가브랜드 '표절' 논란

더민주 손혜원 의원 "프랑스 브랜드 베껴" 주장 문체부 "전문가 검토 후 결정 바꿀 계획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의 디자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최근 프랑스의 'CREATIVE FRANCE' 캠페인 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 "발표 전 사전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국가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모티브로 한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KOREA 로고(4월) 태극페이퍼(5월~11월) 등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 이를 슬로건에 입혀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REATIVE KOREA'가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CREATIVE KOREA'와 프랑스 산업 브랜드 'CREATIVE FRANCE'를 비교하며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이 국가 명 앞에 온 것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의 두 색이라고 우겼던 색은 프랑스 국기의 색"이라며 "프랑스는 '뉴프랑스'라는 대표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산업의 브랜드 슬로건이다. 미처 베끼면서 못 봤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 문체부는 "프랑스의 'CREATIVE'는 현대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의견을 모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슬로건 'CREATIVE'를 제시했다"며 "따라서 프랑스와 우리는 취지와 성격, 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반박했다.

'CREATIVE FRANCE'는 기술, 산업 등의 소재를 활용해 상품 수출과 대외투자 유치 목적을 위한 경제 진흥 캠페인이지만, 'CREATIVE KOREA'는 역사적 자산, 문화 등을 소재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브랜드로 그 위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로고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양 국가의 국기에 적, 청, 백색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한 로고의 색상에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로선이 확장해 공간에 단어나 이미지를 넣지만, 프랑스는 CREATIVE 뒤에 단어를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크리에이티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책 명이나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한 국가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했다.

국가브랜드 사업은 문체부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브랜드를 만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새 국가브랜드 표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어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브랜드·광고홍보 분야의 학계와 현장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단장 장동원 교수)을 구성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까지 공모했다.

그 결과 3만999건의 작품과 약 127만 건의 '한국다움'에 대한 낱말(외국 2만4605 건 포함)을 수집했다. 문체부는 이를 분석해 창의(Creativity)·열정(Passion)·화합(Harmony)을 도출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CREATIVE

KOREA'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국가브랜드에 쓴 돈은 총 35억 5000여만원이다. 지난해 배정한 30억원 가운데 28억7000만원을 썼다. 브랜드와 슬로건 개발비에 2억7000만원, 디자인비 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역시 30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홍보 준비 과정으로 7억여원을 사용했다. 내년 예산도 30여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절이 아니므로 국가브랜드를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군산 은파호수공원서 '토요상설 야외 문화공연'

군산시가 주관하는 '2016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이 오는 9일 저녁 7시30분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펼쳐진다. 시는 주말 저녁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공연문화에 대한 관심을 해소시켜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드립 빅밴드 공연, 밸리댄스 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소년층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해 노인층에서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연을 접할 수 있어 이번 공연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10월 중순까지 은파물빛다리광장에서 매월 2회 이상 토요상설 공연을 열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군산신문정준 기자

화제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 '완벽에 대한 반론' 출간

2016년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결과는 4승 1패, 알파고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언론과 대중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찬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불균형을 예측하며 두려워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더 극적이다. 복제양 톨리가 태어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전인, 지난 5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50명의 과학자가 모여 인간의 유전자 합성에 관한 비밀회의를 연 사실이 보도됐다.

인간 유전자 합성은 곧 '맞춤형 인간' 탄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도전이자 주장하는 한편, '뉴욕타임스'는 "인간 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회의가 비밀리에 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과학자는 신의 영역인 생명창조에까지 인간이 관여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인간은 생명공학 기술의 힘을 통해 완벽해지려는 함정에 빠질까, 급기야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밝은 전망과 어두운 우려를 동시에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밝은 전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어두운 우려는 우리의 유전적 특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샌델은 인간 복제, 근육·신장·기억력 강화 약물 복용, 줄기세포 연구 등 유전공학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 더 이상 그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생명윤리를 둘러싼 다양한 도덕적 난제들을 제시하면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재설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촉구한다. 이수경 옮김, 200쪽, 1만2800원, 와이즈베리

/김민근 기자

전통문화전당 '기접놀이' 재현

9일·23일 각각 선보여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 고유의 전통놀이인 '기접놀이' 공연을 전당 야외마당에서 오는 9일과 23일 오후 3시에 각각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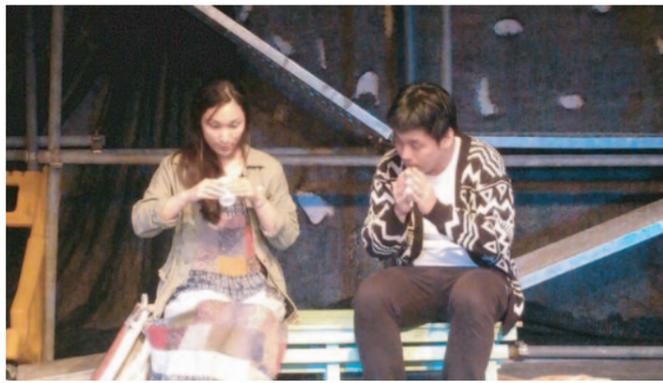
전주기접놀이(용기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벌이던 민속놀이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까지 성행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1974년 풍납재 행사 때 다시 재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의 본고장인 전주 삼천동 함대마을, 비야마을, 용산마을, 정동마을, 효동마을, 원중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기접놀이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연할 예정이다. 이 무대는 전문 공연인들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전당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합죽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한다. 합죽마을은 전북민속예술축제에서 '기접놀이'로 대상을 수상한 단체로 전주에서 발생한 기접놀이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연은 판굿, 용기이여 달리기, 용기놀이, 용기부딪치기, 합죽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재덕 전당 사업본부장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연관련 문의는 236-1577(합죽마을문화생산자 협동조합)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23일에 열리는 공연에서는 기접놀



창작극회 로맨틱코미디 '데이트' 한 장면.

창작극회 로맨틱코미디 '데이트' 공연

창작극회의 로맨틱코미디 '데이트'가 10일까지 창작소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평범하지 않은 두 남녀가 데이트를 통해 느끼는 설렘, 가슴속에서 묻어두었던 지난한 사랑의 꿈들,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림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며 나뉘어가는 작은 희망 등 복잡미묘한 감정의 격랑 속에서 사랑이 동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자, 둘의 만남이 어딘가 걸똥고 뒤똥고 어긋나 보인다.

반마다 번기커버를 사들고 공사장을 찾는 고집 센 여자와 파 이파리가 빠져나온 쇼킹백을 들고 공사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들은 너무 평범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도 없다. 뭔가 원하기도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현대인들의 모습을 닮았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도 일면 맞아떨어진다. 관람료는 전석 1만5000원이며, 문의는 282-1810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8일>

▷쥐띠
46년생: 시비수가 생기니 타인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60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운.
72년생: 이성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운.
84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지리는 피하라.

▷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순간적인 일이나 마음을 안정시켜라.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85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 공과 사를 구별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하고 하는 일의 방향을 잃지 마라.

▷오뎨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다.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사된 일이 발생한다.
76년생: 뒷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니 무리한 부탁이 아니리라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베풀면 덕이 쌓이니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
66년생: 어려움에 처하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겸이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다.
79년생: 유행성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라.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둘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69년생: 변동을 가지면 흥한일이 많다.
81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니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라.
93년생: 좋은 일 했다가 뺨 맞는 격.

▷개띠
46년생: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58년생: 계약을 하기에 좋고 이동하기에 좋은 운이다.
7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는 불리.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돼지띠
4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59년생: 모임을 갖거나 회합을 하기에 좋다.
71년생: 소울해던 동기간의 화합이 좋은 운이니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라.
83년생: 서두르면 불리하니 급할수록 차분해지는 것이 좋겠다.